

아름다운 땅 스리랑카

- 이승환 선교사 / TIM 파송 선교사 스리랑카 사역 -

저는 아름다운 땅 스리랑카에서 6년 간 베다족을 섬기다가 안식년으로 들어온 이승환 선교사입니다.

베다족은 인도 아리안족이 건너오기 전부터 살았던 토착 원주민으로 현재 5지역에 퍼져 4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91년도부터 베다족 사역을 혼자서 말없이 해왔던 현지인 밀턴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베다족이 한국에 알려지게 되고 또한 강력한 중보기도와 팀사역으로 힘을 얻게 되었죠.

베다 마을 정글에 숲을 쳐내고 시작한 유치원은 가까운 학교가 있어도 보낼 줄 몰랐던 부모의 교육열을 자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 13살에 사촌끼리 결혼하고, 또 대책 없이 아이를 낳고 도망가거나, 부모가 없어 굶어죽거나 뱀에 물려죽는 일이 많아서 한 열 다섯 명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도시로 데려와 시작한 어린이집은 저들을 바른 교육과 신앙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 재봉기술 교실, 또 베다인들을 위한 농장 자활센터들은 삶의 의지와 목적을 갱생시키는 발판도 되어 주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이젠 헌신하여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젠 교회사역자들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기적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다보면 선교가 처음 우리가 생각하는 밀림 속의 십자가 같은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새삼 느낍니다.

팬티만 입고 줄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폭포수 사이 암벽으로 다니면서 원주민들의 독침 공격을 피해 다니는 그런 환상...

아니 그런 선교사들을 꿈꾸며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지에 도착했지만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자가용을 타게 되었고, 때론 시원한 선풍기 밑에서 복음을 전하고, 멋진 양복을 입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어 주님을 영접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길에 나가 전도하는 일보단, 세탁기 고장으로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적이 많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선물을 찾기 위해 6시간을 우체국에서 줄을 섰던 일들, 그리고 둘째 예은이가 태어나 산후 조리 한담시고 이리저리 미역국 얻으러 다닌 일들이 더욱 생생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진 않더군요.

물론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많은 부담이 처음엔 두렵지만, 몇 개월 살다보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뒷일을 보는 정도는 익숙하게 되죠. 피부는 틀리지만 동양인의 정서가 비슷해서 서로의 눈빛과 그리고 정문화로 쉽게 사귀어지기도 합니다.

언어만 잘 준비된다면 사역의 깊이와 넓이는 무궁무진한데 말입니다.

왜냐면 언어 속에는 그들의 문화와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보안을 위해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프로젝트로 사역을 위장하는가 하면 비자 받기가 힘들어 신실한 한국인 기업체를 다니며 매년 위장취업을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번은 모업체가 사업은 하지 않고 복음사역만을 강조하다가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비자를 반납하고 추방당하는 일까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기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이윤을 창조하고 다시 현지인들을 추가고용해서 정부에 인정을 받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선교팀을 맡다보면 선교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오는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노방전도를 한답시고 절 앞에서나 인근 공공기관 건물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도리어 장기선교사들에게 커다란 속제를 날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 하시지만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들더군요.

올 여름 단기팀들이 국내외 아웃리치로 나올 터인데, 먼저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된 팀웍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은 모든 현지 원주민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겪는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피스 메이커로 서시고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또 원만한 성품을 가진 인격이 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단 선교기관이나 훈련기관에 들어가서 정기적인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으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룹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고, 배울 수 있으시다면 기술을 하나씩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발 기술도 좋습니다. 차정비도 좋습니다. 컴퓨터조립도 좋습니다.

현장의 필요들을 들으시면서 조금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